

DDC에 있어서의 音樂分野 分類上의 諸問題

韓 敬 信*

목 차

1. 緒 論	3.2 제16판 - 제20판
2. 音樂과 音樂學	4. DDC 제20판 音樂分野의 展開
3. DDC 音樂分野의 變遷	5. DDC 제20판 音樂分野의 問題點
3.1 초판 - 제15판	6. 結 論

1. 緒 論

DDC는 1876년 Melvil Dewey에 의해 고안된 문헌분류법으로, 주로 열거식 방법을 취하면서 부분적으로는 조합식의 형태를 지닌 계층식분류표이다. 44페이지의 초판이 간행된 이후, DDC는 사회의 변천과 학문의 발전에 따라 계속 개정, 발전되어 1989년에는 전 3,388페이지의 4권으로 구성된 제20판을 발행하였다.

DDC는 초판이후 개정판이 발행될 때마다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135개국 이상의 도서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3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왔다. 또한 영국과 오스트레리아를 비롯한 여러나라의 국가서지에도 사용되고 있다.¹⁾ 우리나라에서도 대학도서관을 비롯 특수도서관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²⁾ 이와같이 DDC는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류표이며 국제적 표준분류표로서 인정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DDC가 學問

* 한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1) Melvil Dewey,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0th ed. Albany, New York : Forest Press, 1989. v.1, p. xxvi.

2) 1977년 홍 옥자에 의한 "한국도서관에서 채용하고 있는 분류법의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에 의하면, 응답 도서관중 대학도서관에서는 동서에 55.8%, 양서에 70.1%가, 그리고 특수도서관에서는 동서에 30.9%, 양서에 35.7%가 DDC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分類에 기초를 두고 十進式으로 전개하므로써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階層構造를 지키면서 助記性을 풍부하게 갖는 등의 많은 실용적인 장점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DDC는 최초에 Amherst 대학도서관의 장서를 분류하기 위해 고안되었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개정은 초판의 기본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세분전개만을 지속해 왔다. 따라서 오늘날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현대적인 관점에서 볼때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다. 특히 音樂分野에 있어서 DDC는 다른 주제분야와 마찬가지로 西歐文化의 전통에 따른 西歐音樂 중심으로 전개되어 있다. 또한 구분력이 약한 十進式의 한계에 봉착, 음악을 藝術(Fine arts)의 한 綱으로 취급하여 美術과 함께 전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국의 모든 音樂과 音樂學의 諸分野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음악분야를 집중적으로 개정한 제20판 역시 기존의 기본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로 단순이동과 함께 음악주제의 階層構造만을 深化시켰을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인 배경으로서 音樂과 音樂學의 體系를 살펴본 후, DDC 음악분야의 변천과정을 살펴본다. 그리고 完全改訂表인 제20판 음악분야의 전개상황을 중심으로 하여 일반분류의 요건과 음악주제의 특성을 토대로 세계적인 표준분류표로서의 그 전개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音樂과 音樂學

音樂이란 일반적으로音を 재료로 하여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시간적인 예술이다. 음악은 접근방법에 따라 그 정의를 달리하기도 하는데, 가장 인간과 관계 있는 최근의 음악교육학에서는 “조직화된 소리(organized sound)”로 정의한다.³⁾ 즉, 소리(sound)를 가지고 조직하는 모든 행위의 결과물을 음악으로 보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음악의 재료는 톤(tone)이라고 여겨왔다. 톤은 소리를 음악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직 혹은 체계화한 것이다. 따라서 조직화된 소리란音を 재료로 하는 전통적인 정의를 확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음악의 역사

3) Charles R. Hoffer著, 안 미자譯, 음악교육론, 서울:이화여대출판사, 1987. p.12.

와 관련이 있는데, 과거에는 고른 주파수를 가진 풀만을 음악의 재료로 사용하였으나 현대에 와서는 불규칙한 주파수를 가진 풀이 아닌 소리도 음악의 재료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音樂(music)은 文藝分野를 장악하는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muse에서 유래한다. 그리스語 musica는 muse의 예술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어 음예술, 시예술, 무용예술을 포함한 넓은 의미로 사용되다가 음예술만의 좁은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 중국과 우리나라에서는 음악을 樂이라 했는데, 이것은 악기와 악기를 거는 걸이(架)의 상형문자이다. 또한 음의 울림은 사람의 마음에 따라 생기는 것이므로, 도덕 및 윤리와 관련지어 禮樂이라고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개항 이후 1880년대에 서양음악을 우리의 재래음악과 구별하여 洋樂이라 불렀으며, 음악이란 말이 오늘날과 같은 의미로 쓰인것은 1910년 이후 부터이다.

음악은 시대나 민족에 따라 다양하다. 이것은 각 시대나 민족이 어떻게 독자적인 형식으로 소리를 포착하였는가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음악은 원래 독립적인 예술로 행해진 것은 아니었다. 古代에는 주술, 마술, 노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다. 또한 종교를 비롯한 윤리, 도덕, 冠婚喪祭 및 사교등과 관련을 맺으면서 시대나 지역에 따라 여러가지 형태로 변화하면서 존속하여 왔다. 따라서 음악의 재료, 기능 및 사회적위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리고 지역에 따라 달라져 왔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上古時代로 부터 내려온 고유한 鄉樂에 중국에서 唐樂이 건너와 함께 어울려 내려왔고, 고려시대에는 다시 宋樂이 건너와 크게 위세를 떨치므로써 한때 큰 영향을 끼쳤다. 1116년(예종 11년) 大晟雅樂이 들어오므로써 우리의 음악은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게 되어 고려후기와 조선전기를 통해서 雅樂은 궁중의 正樂으로, 鄉樂등의 재래음악은 俗樂으로 그 나름대로 각각 틀을 잡아갔다. 1880년대 이후 서서히 서양음악이 들어오고, 또한 1910년 이후 일제가 들어서서 제례음악등을 폐지함에 따라 雅樂은 위축일로의 길을 걸어왔으나 동양최고의 樂으로 우리나라에만 남아있고, 현재는 唐樂, 俗樂도 雅樂과 더불어 國樂이란 이름으로 보존, 전승되고 있다.⁴⁾

音樂學이란 음악에 관한 학문적연구의 총괄로, 광의로는 “고대이후 발전된 음악에 관한 모든 이론”을, 협의로는 “18C이후에 발전된 독립된 과학으로서의 근대

4) 김 성태, “음악:동양음악, 한국음악”, 동아세계대백과사전, 서울:동아출판사, 1989. 제22권, p.615.

음악학”을 말한다.⁵⁾ 음악학이 처음 성립되었던 독일에서는 음악학을 musik-wissenschaft라 칭하는데, 이것은 음악 musik와 학문 wissenschaft의 합성어이다. 영어 musicology 또한 음악 music과 학문 logy의 합성어이다.

19세기에 이르러 음악학은 근대적 의미의 독립과학으로 성립하게 되었다. 이것은 계몽주의에 이르러 諸인간과학이 학문으로서의 체계를 마련하면서 음악학 역시 체계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음악학(음악과학)이란 용어가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된 것은 1860년 독일의 역사학자겸 음악학자인 F. Chrysander가 편찬한 *Jahrbücher für musikalische Wissenschaft*에서이다. 여기에서 그는 음악학은 그 자체가 다른 과학학문과 동등한 수준에서 과학으로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⁶⁾ 이후 1885년 Guido Adler의 논문 “Umfang, Methode und Ziel der Musikwissenschaft”에서 비로소 근대개념의 음악학의 체계가 조직적으로 다루어졌는데, 현재까지 인정되고 있는 음악학 방법론의 2분법인 체계적음악학과 역사적음악학이 여기에서 제시되었다.⁷⁾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음악학이란 우리 음악의 체계적인 이해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음악을 연구대상으로 하는 학문의 총칭으로 요약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음악이란 말은 넓은 의미로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음악활동을 뜻하며, 좁은 뜻으로 해석하면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고 있는 전통음악을 가리킨다.⁸⁾

음악은 이론 중심적인 다른 학문과는 달리 이론에 실천이 동반되는 학문이다. 사실상 음악은 이론보다 실천이 먼저 생겼는데, 원시시대부터 인간이 소리를 가지고 하는 모든 표현행위를 최초의 음악의 기원으로 보는 것이다. 음악은 크게 이론과 실천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론은 모든 음악에 관한 이론적 연구 및 활동으로 음악학이라 불리운다. 실천은 크게 창작(작곡)과 연주 즉, 음악을 만들어내는 작업과 만들어진 음악을 연주하는 행위로 분류한다. 연주는 표현매체에 따라 최초의 악기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목소리인 성악과 인간에 의해 도구를 이용하여 만들어진 음악인 기악으로 나눌 수 있다. 이상의 음악의 체계는 <표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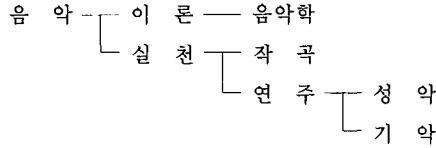
5) F. Blume ed., *Die Musik in Geschichte und Gegenwart*. Kassel: Druckerei C. Bruegel & Sohn, 1968. Band.9, s. 1192.

6) 이 강숙, *음악의 방법*. 서울: 민음사, 1982. p.135.

7) Guido Adler, “Umfang, Methode und Ziel der Musikwissenschaft”, *Vierteljahresschrift Für Musikwissenschaft* 1(1885), pp.5-20.

8) 宋 芳松, “한국음악학의 성장과정과 당면문제”, *민족문화연구의 방향*. 대구: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0. p.146.

〈 표 1 〉 음악의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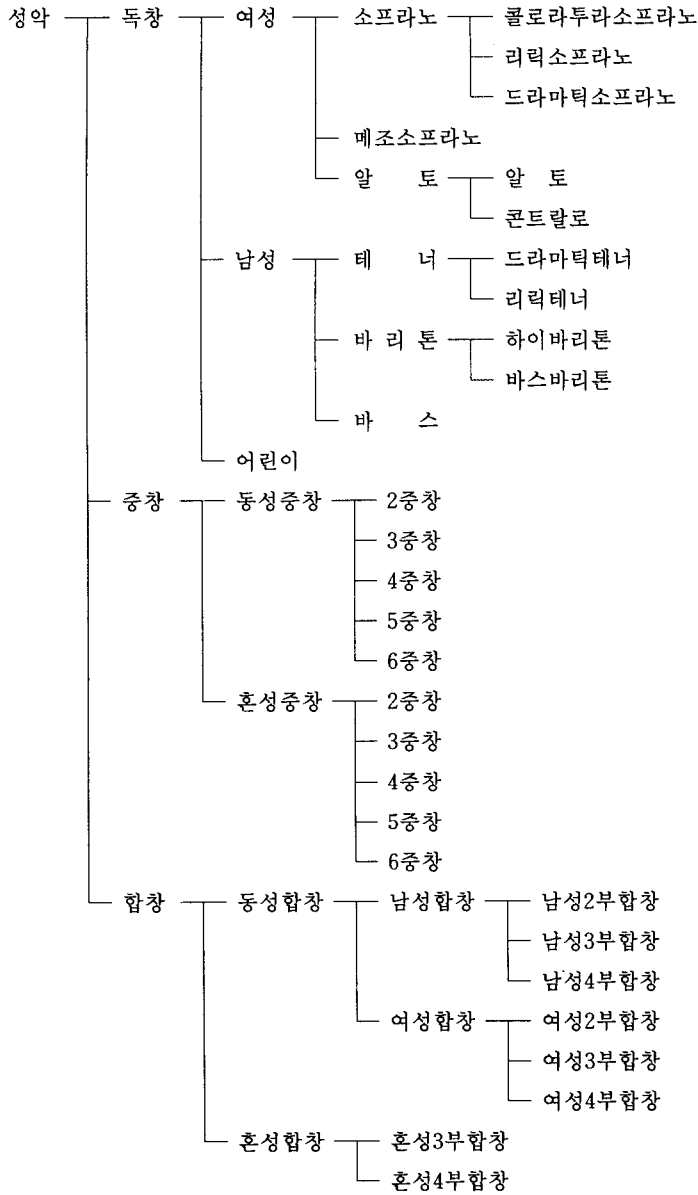
作曲은 樂曲을 창작하는 것을 말한다. 作曲은 演奏와 함께 실천의 한 장르로서, 작곡에 의해서만 연주는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作曲은 演奏에 앞서는 장르라 할 수 있다. 作曲은 주로 음악학의 諸分野에서 이미 얻어진 이론적인 성과를 사용하므로써 이루어지는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작곡을 위해서는 음악의 기초이론, 和聲法, 對位法, 형식론, 관현악법, 악기론, 작곡기법, 편곡법등의 지식이 요구된다.

연주부분의 성악과 기악은 다양한 형태로 나뉘어진다. 聲樂은 人聲에 의한 음악의 총칭으로, 歌詞로 음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인간적인 감정을 가진 음악이다. 그러나 音域이 器樂보다 좁아서 樂曲에 제한을 갖으며, 반주를 수반하는 일이 많으므로 순수한 人聲만의 음악은 적다할 수 있다. 성악은 연주형태에 의해 독창, 중창, 합창으로 나눌 수 있다. 연주형태에 의해 나누어진 각 부분은 다시 音域에 의해 독창은 여성, 남성, 및 어린이로 중창과 합창은 각각 동성과 혼성으로 나뉘는데, 이들의 자세한 내용을 도식화하면 〈표2〉와 같다.

器樂은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음악을 말한다. 즉, 악기라는 外在的인 매체에 육체의 일부가 작용하므로 음량, 음색, 음역등에서 聲樂보다 폭넓은 표현이 가능하고, 각 악기의 특성을 살린 독자적인 기악형식이 형성될 수 있다. 器樂은 악기의 分類와 그 編成에 따라 음악이 달라진다. 악기의 분류는 현재 악기가 사용되든 사용되지 않든 살아있는 전통으로서 계승되고 있는 악기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에서 악기란 Erich M. Hornbostel에 의하면 의도적으로 소리를 낼 수 있는 모든 것, 즉 “소리를 내는 기구” 또는 “소리기구”를 말한다.⁹⁾ 악기의 분류방법은 악기의 재료, 발음기구, 형태, 연주형태, 연주법 및 연주하는 음악등 각기 그 입장에 따라 그리고 시대에 따라 편의적으로 분류하여 왔

9) Erich M. Hornbostel, "The Ethnology of African Sound-instruments", *Africa* vi(1933), p.129.

< 표 2 > 성악의 체계



다. 그러나 이들중 어느 한 분류법만으로 악기의 성격을 다각적으로 표현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樂器分類은 이미 古代文化에서도 지역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아라비아의 2분류법, 인도의 4분류법, 중국의 8분류법등이 있어 왔다. 아라비아의 2분류법은 奏法的인 분류로, 1) 인간의 손에 의한 것과 2) 호흡기관에 의한 것으로 악기를 분류한 것이다. 인도의 4분류법은 악기를 발음체에 따라 1) tata(현악기), 2) sushira 또는 gushira (簧 또는 氣鳴악기), 3) avanaddha(가죽으로 씌운 타악기), 4) ghana(금속타악기)로 분류하였다. 또한 중국의 8분류법은 악기를 그 材料에 따라 나눈 것으로 1) 土, 2) 匏 3) 革 또는 皮, 4) 竹, 5) 絲, 6) 石, 7) 金, 8) 木의 8가지로 분류한 것인데,¹⁰⁾ 우리나라에서도 이 8분류법을 받아들여 1908년의 增補文獻備考를 비롯하여 韓國國樂器圖說¹¹⁾ 및 韓國樂器大觀¹²⁾ 등에서 국악기분류에 응용하고 있다.

學問的인 의미에서의 樂器分類法에 관한 가장 오랜 문헌은 1511년 S. Virdung의 *Musica Getuscht und Ausgezogen*을 비롯 1618년 Michael Praetorius의 *Syntagma Musicum* 및 1636년 Marin Mersenne의 *Harmonie Universelle*등을 든다. 이들은 17세기 전 유럽에 있어서의 악기분류의 개념을 말해주는데, 르네상스 이후의 기악 혹은 관현악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악기수집 및 분류가 발달한 것은 19세기에 들어와 동양을 비롯한 非유럽圈의 악기수집이 시작되면서 부터이다. 따라서 시간적,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악기들을 포괄하는 악기발전사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체계적으로 정리, 서술되기 시작하였다.¹³⁾

유럽적인 전통 또는 습관으로 부터 전 세계에서 일반적으로 관용되고 있는 3분류법은 모든 악기를 1) 현악기, 2) 관악기, 3) 타악기로 나누는 것이다. 이것은 오케스트라 편성시 악기들을 연주방법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누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악기분류에 3분류법을 적용할 때 실제 어느 그룹에도 들지 않는 악기가 많이 발생하여 부자연한 분류가 일어나는데, 예를들면, celesta를 타악기라고 하면 drums등과 매우 접근되게 분류한 것이 된다. 또한 3분류법은 비논리적이기도 하

10) 음악대사전. 서울:세광음악출판사, 1982. p.10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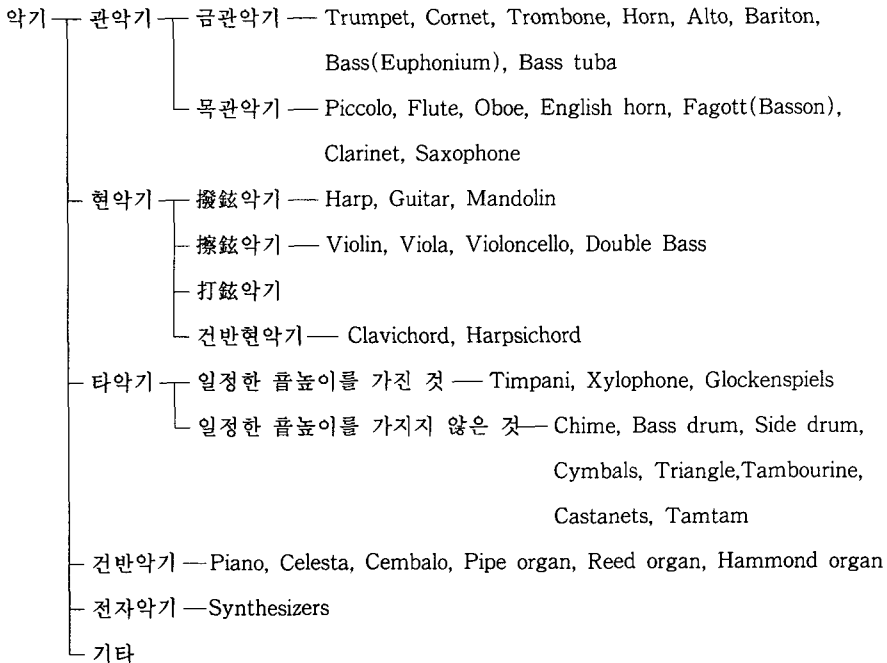
11) 韓國國樂學會編, 韓國國樂器圖說. 서울:東新文化出版社, 1966.

12) 張 師助, 韓國樂器大觀. 서울:韓國國樂學會, 1969.

13) 홍 정수, 조 선우편저, 음악은이 1. 서울:세광음악출판사, 1990. p.25.

여, 현악기는 발음원의 물질에 의한 구별인 것에 반하여 관악기와 타악기는 흡을 내는 방법에 의한 구별이다. 또 Aeolian harp와 같이 吹奏되는 현악기나 피아노와 같이 打奏되는 현악기의 존재는 전적으로 무시되고 있다.¹⁴⁾ 그리고 관악기를 목관과 금관으로 나누는 것도 문제인데, 금관악기중 많은 것이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기도 하고, 목관악기중 많은 것이 금속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현악기와 타악기로 부터 건반악기를 분리시켜 4분류하는 경향이 다. 또한 과학의 발달에 의한 전기에너지의 도움으로 소리를 내는 전자악기가 출현함에 따라 5분법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것 역시 각 악기의 성격을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복되거나 어느 그룹에도 들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기타그룹을 포함시켜 이들을 요약해 보면 <표3>과 같다.

< 표 3 > 현대의 일반적인 악기분류



한편 1914년 Erich M. Hornbostel과 Curt Sachs는 악기의 발음체를 제1분류요소로 하여 4분류하고 다시 구조, 기능, 주법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세분 전개한 악기분류법을 발표하였다.¹⁵⁾ 이것은 오늘날 전 세계의 모든 민속악기를 포함시킬 수 있는 악기분류법으로서 20세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악기분류법은 이 새로운 분류법과 맞서게 되었다. 또한 이 호른보스텔·작스분류법은 DDC 제20판의 음악주제 분류에 기초자료로 사용되어 지기도 하였다.¹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분류법 및 용어에 익숙치 않아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다. 호른보스텔·작스의 분류법은 악기가 어떻게 소리를 내는가에 따라 4개의 그룹, 즉 1) Idiophone(몸울림;體鳴악기), 2) Membranophone(막울림;膜鳴악기), 3) Chordophone(현울림;絃鳴악기), 4) Aerophone(공기울림;氣鳴악기)으로 분류하고, 다음은 연주법과 구조를 고려하여 세분한 것이다.

또한 器樂은 악기의 編成에 의하여 분류되는데, 編成에 의한 분류는 관현악(orchestra), 실내악(ensemble), 현악합주, 관악합주, 건반악기 앙상블, 기타 혼합형태로 나눌 수 있으며, 관악합주는 목관합주와 금관합주로 나뉜다.

음악은 또한 음악의 사회적 기능에 의해 분류되기도 하는데, 음악을 기능적으로 분류하면 종교음악, 대중음악, 무용음악, 극음악, 민족음악 등으로 나눌 수 있다.

國樂은 우리나라의 고유음악 또는 고전음악을 일컫는 말로 역사상으로는 1) 고대국악(三韓 이전), 2) 1)代국악(三韓이후부터 삼국시대까지), 3) 중세음악(고려시대), 4) 근세국악(이조시대), 5) 현대국악(이조이후부터 오늘날까지)으로, 계통상으로는 1) 鄉樂, 2) 雅樂, 3) 唐樂, 4) 俗樂으로, 구성상으로는 1) 聲歌, 2) 奏樂, 3) 無踊으로 나뉜다.¹⁷⁾

우리나라 國樂器의 분류는 이조 성종 24년의 樂學軌範에서 각 악기가 어떠한 계통의 음악에 편성되는가에 따라 3부 65종으로 분류하였다. 이 계통에 의한 분류는 모든 국악기를 1) 雅部(雅樂器), 2) 唐部(唐樂器), 3) 鄉部(鄉樂器)로 분류한 것이다. 또한 1908년 우리나라古今의 文物제도 典章을 분류, 집록한 增補文

14) Klaus Wachsmann, Erich M. Hornbostel and Curt Sachs, "Instruments, classification of", In Stanley Sadie ed.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London:Macmillan, 1980. v.9, p.242.

15) Erich Moritz von Hornbostel and Curt Sachs, "Systematik der Musikinstrumente: ein Versuch", *Zeitschrift für Ethnologie* Heft 4 u.5(Jahrg,1914), pp.553-590.

16) Melvil Dewey,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0th ed, op.cit., v.4, p.932.

17) 음악대사전. 서울:신진출판사, 1973. p.101.

獸備考에서는 처음으로 중국으로 부터 중국의 8분류법을 도입하여 모든 악기를 8음 61종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악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주요 재료에 따라 1) 金部, 2) 石部, 3) 絲部, 4) 竹部, 5) 匏部, 6) 土部, 7) 革部, 8) 木部로 분류하였다. 또한 서양의 전통아래 내려온 오늘날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연주법에 의한 5분류법이나 발음원리에 의한 호른보스텔·작스의 4분류법을 채택하여 우리의 국악기를 분류하기도 한다.

國樂器의 編成法은 고려·이조시대를 통하여 많은 변천이 있었다. 國樂器의 編成法은 雅樂에만 국한되었는데, 1910년 이후 궁중의 여러가지 의식에 갖추어 쓰던 연주형태는 무너지고 무대음악으로 형성되면서 編成方法도 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그 編成法에 따른 용어도 점차 바뀌게 되었다.¹⁸⁾ 현재 국립국악원에서 사용되는 國樂器의 編成에 의한 분류는 1) 合樂, 2) 管絃合奏, 3) 管樂合奏, 4) 絃樂合奏, 5) 細樂, 6) 竝奏, 7) 獨奏등으로 나뉜다. 또 絲風流, 竹風流, 三鉉六角, 三鉉合奏등의 용어도 쓰인다.

音樂學의 영역은 음악학의 역사적 발전에 따라 달라져 왔다. 근대적 의미의 최초의 음악학적 영역분류는 Guido Adler에 의해 제시되어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체계음악학과 역사음악학의 음악학 방법상의 2분법이다. 이후 이 2분법의 분류는 많은 음악학자들에 의해 계속 주장되면서 발전하여 왔다. 또한 3분법을 비롯한 다양한 음악학의 영역분류가 다른 많은 학자들에 의해 지적되어 왔다. 현재는 Adler의 전통에 의한 체계음악학과 역사음악학의 2분법과 3분법으로서의 체계음악학, 역사음악학 및 종족음악학의 분류법, 그리고 체계음악학, 역사음악학 및 응용음악학의 분류법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음악학의 영역은 시대의 흐름과 학문의 발전에 따라 계속 확충되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확충되어질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체계음악학, 역사음악학 및 응용음악학의 체계가 계속 확충되어지는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분류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3분법에 따라 음악학의 각 분과학을 기술해 보면 <표4>와 같다.

18) 張 師勳, op.cit., p.151.

〈 표 4 〉 음악학의 분과학

음악학	—	세계음악학 — 음악음향학, 음악생리학, 음악심리학, 음악사회학, 음악교육학, 음악철학, 음악미학, 종족음악학, 음악해석학, 음악현상학, 음악기호학, 음악윤리학, 음악이론의 이론, ¹⁹⁾ 음악분석론,
		역사음악학 — 음악역사철학, 음악편사학, 음악사기술, 음악사료, 음악문헌학, 기보법
		응용음악학 — 음악비평, 악기제작(악기학), 음반학, 연주이론, 음악감상

3. DDC 音樂分類의 變遷

DDC에 있어서 음악분야의 분류는 1876년의 초판부터 현재의 제20판까지 第8類인 700 藝術(The arts Fine and decorative arts)內的 한 綱인 780 Music으로 분류되어 왔다. Dewey는 당시 모든 예술분야를 십진식으로 배치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것으로부터 추상적인 것의 순서로 배열했으며, 추상적인 예술일수록 art objects수는 많아지므로 文學을 따로 한 類(800)로서 할당하였다고 했는데,²⁰⁾ 먼저 초판부터 제20판까지 계속된 예술분야의 분류를 살펴보면 <표5>와 같다.

이와같이 文學과 함께 추상적인 藝術로 고려되는 音樂은 막대한 양의 음악자료를 분류함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켜 왔다. 따라서 DDC에 있어서 지금까지 가장 개정을 필요로 하는 한 분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DDC 음악분야의 분류는 초판이후 113년이 지난 오늘날의 제20판에 이르러 완전히 개정되었다고는 하나 사실상 초판의 기본골격인 藝術의 한 綱으로서의 780內에서 개정 및 세분전개만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DDC의 구분력이 약한 십진식분류라는 한계와 제1·2판의 기본골격의 고수라는 편집정책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 "음악이론의 이론"은 음악의 기초이론, 멜로디, 리듬, 화성법, 대위법, 형식론, 악기론, 관현악법 등이 포함된다. (Glen Haydon, *Introduction to Musicology*. Chapel Hill :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41. pp.155-185 참조)

20) John Phillip Comaromi, *The Eighteen Editions of the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New York:Forest Press, 1976. p.76.

〈 표 5 〉 DDC 초판과 제20판의 예술분류

〈초판〉	〈제20판〉
700 Fine Arts	700 The arts Fine and decorative arts
710 Landscape Gardening	710 Civic and landscape art
720 Architecture	720 Architecture
730 Sculpture	730 Plastic arts Sculpture
740 Drawing and Design	740 Drawing and decorative arts
750 Painting	750 Painting and paintings
760 Engraving	760 Graphic arts Printmaking and prints
770 Photography	770 Photography and Photographs
780 Music	780 Music
790 Amusements	790 Recreational and performing arts
800 Literature	800 Literature and rhetoric

다음은 DDC 음악분야의 변천과정을 1) 초판에서 제15판까지와 2) 제16판에서 제20판까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DDC가 처음으로 LC의 지도체제에 들게되는 시기를 중심으로 구분한 것이다.

3.1 초판 - 제15판

여기에서는 초판과 제2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것은 초판에는 최초의 편찬자인 Melvil Dewey의 분류철학이 함축되어 있고, 제2판에서는 DDC 분류번호의 안정성(stability)에 관한 편집정책이 완전히 확립되어 있어 그 이후의 개정의 방향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藝術(Fine Arts)의 한 綱으로 美術의 각 분야와 함께 780에 전개된 초판의 음악분야 분류의 전개를 살펴보면 〈표6〉과 같다.²¹⁾

DDC에서의 음악분야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초판에서 부터 類가 아닌 700 Fine Arts內에서의 한 綱인 780 Music으로 분류되어 있다. 또한 〈표6〉에서 보는

21) Melvil Dewey, *A Classification and Subject Index for Cataloging and Arranging the Books and Pamphlets of a Library*. Amherst, Mass.: [Amherst College Library], 1876, p.20.

〈 표 6 〉 DDC 초판의 음악분야 전개표

780	Music
781	Theory
782	Dramatic
783	Church
784	Vocal
785	Instrumental
786	Piano and Organ
787	Stringed Instruments
788	Wind Instruments
789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바와 같이 음악의 이론보다는 실천중심으로, 목까지만 전개되어 있다. 제2판부터 細目까지 전개되어 있으나, 현재의 제20판까지 한 綱으로서의 780 Music은 여전히 고수되어 있다. 또한 DDC는 원래 신학중심 대학인 Amherst 대학도서관의 장서를 분류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중심의 歐美의 전통아래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은 음악분야에도 나타나 783에 Church인 기독교중심의 교회음악을, 그리고 785-788까지의 악기에 서양악기를 중심으로 한 기악을 전개한 것이다. 악기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일반 악기분류중 타악기 (percussion instruments)가 제외되었는데, 제2판부터는 계속 전개되었다. 또한 건반악기로 분류되는 Piano와 Organ은 악기명으로, 현악기와 관악기는 악기의 그룹명으로 표현되어 일관성이 없다.

훨씬 좋은 평가를 받은 1885년에 간행된 제2판에서의 큰 변화는 목이 한 단계 더 세분되어 細目으로까지 전개되었다.²²⁾ 이것은 700 Fine Arts內에서 780 Music에만 확장된 것으로, Fine Arts의 전 8페이지중 한 綱인 780 Music이 3.5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음악에 있어서 초판의 10항목에 불과하던 것이 제2판에서는 143개 항목으로 확장되어 전개되었는데, 초판과 제2판의 목에서의 변

22) Melvil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 Index*, 2nd ed. (revised and greatly enlarged ed.) Boston: Library Bureau, 1885.

화를 살펴보면 <표7>과 같다.

< 표 7 > 초판과 제2판의 음악분야의 비교표

< 초판 >	< 제2판 >
780 Music	780 Music
781 Theory	781 Theory of Music
782 Dramatic	782 Dramatic Music
783 Church	783 Sacred Music
784 Vocal	784 Vocal Music
785 Instrumental	785 Orchestral Music
786 Piano and Organ	786 Piano and Organ
787 Stringed Instruments	787 Stringed Instruments
788 Wind Instruments	788 Wind Instruments
789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789 Percussion and Mechanical Instruments

제2판의 781 Theory of Music, 782 Dramatic Music 및 784 Vocal music은 용어 변화일뿐 의미상의 변화는 없다. 초판의 783 Church는 Sacred Music으로 변경되었는데, 이것은 Dewey가 종교음악에 있어서 주관적인 교회음악으로부터 탈피하여 모든 종교음악을 허용하고자 한 사실에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785 Instrumental은 Orchestral Music으로 변경되어 기악의 형식분류를 중심으로 編成에 의한 음악형식을 전개하고 있다. 789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는 780.6 Societies로 용어변경과 함께 移置되었으며, 789에는 초판에서 간과된 Percussion and Mechanical Instruments가 추가되었다. 또한 787-789는 악기의 그룹명으로 표현한데 반하여 786 Piano and Organ은 제1판에서와 같이 악기명으로 표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細目으로까지 세분전개된 제2판은 모든 다른 분야에서와 같이 조기성을 위해 형식구분의 순서로 배열하고 있다. 제2판의 항목배열상 불합리한 점은 역시 전체적으로 이론보다는 실천중심이며 기독교·서양중심의 분류표이다. 781 Theory of Music에 있어서 781.7 Oriental Theories and Forms, Russian Music을 제외하고 모든 細目은 서양중심이다. 782 Dramatic Music은 오페라가 융성했던 세 나라, 즉 독일, 프랑스, 이태리와 오페라의 종류를 혼합하여 세분전개되었는데, 각

오페라의 종류는 세 나라 모두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分類時 문제가 야기된다. 783 Sacred Music은 초판의 Church에서 보다 종교음악을 포괄적으로 다루었다고는 하나 역시 교회음악, 특히 중세음악 이후의 교회음악 중심이다. 또한 Sacred Music의 세목전개는 주로 중세음악이후 교회와 관련된 음악양식들인데, 동등한 위치에서 제외된 교회음악 양식들이 있다. 그리고 783.4에 있어서는 Polyphonic School에 상반되는 Monophonic School에 대한 항목이 없다. 또 783.4에 포함된 Palestrina는 르네상스 말기의 교회음악 작곡가로서 同時代の 작곡가인 Bach등이 제외되어 있다. 784 Vocal Music 역시 783에서와 같이 성악양식중 동등한 위치에서 제외된 것들이 있다. 785 Orchestral Music은 주로 형식분류로 세분전개되었으나 그중 제외된 것들이 있는가 하면 編成에 의해 분류된 것이 들어가기도 하였다. 789 Percussion and Mechanical Instruments에서는 어떠한 기준도 없이 타악기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으며, Timpani와 같은 중요한 타악기가 제외되어 있다.

1885년의 제2판부터 1922년의 제11판까지는 제3판에서 부터 786.2 Manufacture에 Tuning과 Temperament가 추가되어 Manufacture, Tuning, Temperament로 된 것과 또 제8판에서 부터 항목의 용어표현에서 약어를 사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어떠한 변화도 없다. 이와같이 큰 변화가 없는것은 계속 새로운 판의 발행정책이 도서관에서의 유용한 새로운 지식증대에 기초된 것이 아니라 현재판에 대한 검토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각 판사이의 짧은 기간은 어떠한 대규모로의 확장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1927년의 제12판은 많은 새로운 용어의 추가와 확장이 있었다. 특히 그동안 확장의 필요성이 지적되어온 780 Music은 제11판의 142개 항목에서 330개 항목으로 증가되었다. 제12판은 전반적으로 DDC의 확정된 구조內에서 DDC를 현대화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의 결과로, 이것은 당시 열광적인 활동을 시도하였던 LCC와의 보조를 맞추기 위한 듯 하다. 제12판에서의 변화내용을 살펴보면 눈에 있어서 781 Theory of music이 Theory and technic of music으로, 782 Dramatic music이 Dramatic music Theater music으로, 783 Sacred music이 Church music Sacred music으로, 785 Orchestral music이 Instrumental ensemble로, 그리고 786 Piano and Organ이 Keyboard instruments로 변경되었는데, 의미에서의 변화보다는 주로 용어상의 변화이다.

1932년의 제13판은 Dewey가 마지막으로 개정작업에 참여한 것으로, Tables와

Index에 404페이지가 증가하여 1,647페이지로 증가되었다. 그러나 780 Music에서 細目에 있어서의 약간의 용어변화뿐 어떠한 확장도 없다.

1942년의 제14판은 그동안 대부분의 DDC 이용자들이 원했던 Standard Edition 이 될 제15판의 기초로서 먼저 확장되지 않은 주제들은 확장하고 보다 확장된 주제들은 축소하므로써 충분히 균형된 분류표를 만든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제14판은 1,927페이지나 되는 큰 규모의 크기가 되었으며, 특히 700 Fine arts에 과도한 확장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80 Music은 788.9에서 alpenhorn, etc. 가 추가되어 Other reed wind instruments : bagpipe, alpenhorn, etc.가 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12·13판과 똑같다.

당시 Standard Edition으로 발행된 1951년의 제15판은 제14판을 대폭 축소한 것으로 총 716페이지이며 용어는 모두 표준철자로 바뀌었다. 전체항목수는 제14판의 31,434개에서 4,621개로 약 14%로 축소되었으며, Tables에 300개 항목, Index에 1,000개가 바뀌었다. 특히 700 Fine arts 분야에서는 제14판의 2,879개 항목수가 457개로 15.9%로 축소되었는데,²³⁾ 780 Music에서는 옛 의미에 대한 많은 새로운 numbers가 있었다.

제15판은 제14판을 지나치게 축소하여 사용이 어렵다는 비판에 따라 대체로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그 다음해인 1952년을 판권년으로 한 제15개정판이 1953년에 발행되었다. 이것은 특히 색인과 형식구분에서의 많은 확장으로 927페이지로 증가하였다. 780 Music은 제14판의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로 증가하였다. 제15개정판에서의 변화내용을 살펴보면 目에 있어서 제14판의 783 Church music Sacred music이 Church music으로, 789 Percussion and mekanical instruments가 Percussion Instruments Mechanical Reproduction of Music으로 약간의 용어변화만 이루어졌다. 그러나 目内の 細目에 있어서는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3.2. 제16판 - 제20판

다음은 DDC가 처음으로 LC의 지도체제에 들게되는 제16판부터 가장 최근판인

23) John Phillip Comaromi, op. cit., p.396.

제20판까지의 변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1958년의 제16판은 제14판의 구조를 따르고 제15판의 용어를 존속시키면서 발전시킨 것이다. 제19판까지의 편집자가 될 Benjamin A. Custer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제16판은 처음 분류표와 상관색인의 2권으로 편찬되었다. 총 2,447페이지로 지금까지의 DDC중 가장 큰 것이며 제14판보다도 전체크기에 있어서 최소한 25%가 더 크다.²⁴⁾ 그러나 실제적인 항목수에 있어서는 제14판의 31,434개에 비하여 17,928개로 제14판보다 훨씬 적다.

큰 확장 및 감축으로 특징을 이루는 700 The Arts의 항목수는 1,407개로, 제14판의 2,880개에서 제15판에서는 456개로 축소되고 다시 제16판에서 증가한 것이다.²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780 Music은 제14판의 10페이지, 제15판의 11페이지에서 39페이지로 크게 증가하였다. 제16판에서의 변화내용을 살펴보면 눈에 있어서 782 Dramatic Music Theater Music은 Dramatic Music으로, 783 Church Music은 다시 Sacred Music으로, 785 Instrumental Ensembles는 Instrumental ensemble and its music으로, 786 Keyboard Instruments는 Keyboard instruments and their music으로, 787 String Instruments는 String instruments and their music으로, 789 Percussion Instruments Mechanical Reproduction of Music은 Percussion, mechanical, electrical instruments로 변경되었는데, 주로 용어상의 변화이다. 각 目内の 細目은 역시 많은 용어변화와 함께 대폭 확장되었다.

1965년에 출판된 제17판 역시 2권으로 총 2,153페이지이며, 지리세목을 위한 지리구분표가 추가되고 처음으로 자국우위성에 따라 DDC를 고쳐쓰도록 권장하였다. 총 항목수는 제16판의 17,928개보다 976개 적은 17,132개이나, 700 The arts에서는 1,785개로 378개 증가하였다. 780 Music은 39페이지에서 40페이지로 1페이지 증가하였다. 제17판에서의 변화내용을 살펴보면, 눈에 있어서 781 Theory and technique of music은 General principles and techniques로, 782 Dramatic music은 Dramatic music and production of musical drama로, 784 Vocal music은 Voice and vocal music으로, 785 Instrumental ensemble and its music은 Instrumental ensembles and their music으로 변경되었는데, 주로 용어상의 변화

24) Ibid., p.511.

25) Ibid., p.512.

이다.

1971년의 제18판은 Benjamin A. Custer의 노력에 의한 대성공으로, 새로운 보조표가 도입되어 열거식 분류체계에서 점차 분석·합성적 성격을 강화해 나갔다.²⁶⁾ 총 3권으로 구성된 제18판은 제17판보다 565페이지가 많은 2,718페이지로, 총 항목수는 제17판의 17,132개에서 18,980개로 증가하였다. 700 The arts Fine and decorative arts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며, 780 Music 또한 마찬가지이다. 제18판에서의 변화내용을 살펴보면, 눈에 있어서 781 General principles and techniques가 General principles and considerations로 용어변화가 이루어진 것 외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다.

1979년의 제19판은 역시 3권으로 제18판보다 667페이지 증가한 3,385페이지이며, 용어의 현대화와 국제적인 사용을 배려한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총 항목수는 21,504개로 제18판보다 2,524개 증가하였으며, 700 The arts Fine and decorative arts는 310개 증가한 2,222개이다. 780 Music은 제18판의 36페이지에서 41페이지로 증가하였다. 제19판에서의 변화내용을 살펴보면, 눈에 있어서는 제18판과 같으며 각 目内の 細目에서만 약간의 용어변화, 추가, 확장 및 축소가 이루어졌다.

1989년의 DDC 제20판이 출판되기전, 780 Music 분야에서는 제20판을 위한 기초로서 이용자들이 새로운 schedule에 반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독립된 music schedule인 *Proposed Revision of 780 Music*을 1980년 역시 Forest Press에 의해 한 분책으로 발행하였다.²⁷⁾ 이것은 DDC 780 Music에 대한 철저한 개정의 필요성을 오랜동안 인지해온 분류자와 사서들에게 그것의 실용적 가치를 테스트하도록 한 시도라 할 수 있다. British Library Association의 후원하에 Russell Sweeney와 John Clews의 지도아래 1973년부터 준비된 *Proposed Revision* 작업은 ALA의 한 음악전문소위원회를 비롯하여 미국, 영국, 캐나다 및 오스트레일리아의 분류 및 음악전문가들을 포함시키면서 1980년에 발행, 그것의 유용성에 관한 반응을 도서관계에 공개하였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DDC의 구조와 체계로부터 탈피하여, 구조는 주로

26) 배 영환, "DDC 제20판의 성립과정과 구성 및 개정사항에 관한 연구(1)", 도서관 45권 5호('89.9.10), p.24.

27) Russell Sweeney and John Clews, *Proposed Revision of 780 Music Based on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Albany, New York :Forest Press, 1980.

E. J. Coates에 의해 개발된 파셋분류표인 *British Catalogue of Music Classification*²⁸⁾을 위해 수행된 주제분야의 분석에 기초하면서 DDC의 780 Music에 대한 똑같은 범위를 사용하여 전개하였다. 또한 여러 도서관에서의 테스트를 거친 것으로, 789에 composers table인 Individual Composers를 삽입한 특징을 갖는다. 1982년 Robert H. Hassell은 실내악의 연주입장에서 DDC 제19판 780 Music과 Proposed Revision scheme을 비교연구 하였는데, Proposed Revision은 DDC의 다음판, 즉 제20판에 DDC의 일부로서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²⁹⁾ 그리고 실제로 제20판 780 Music의 많은 부분에서 구체화 되었다.

1876년 초판의 발행이후 113년이 지난 1989년의 제20판은 John Phillip Comaromi의 편찬으로 OCLC의 한 부서가 된 Forest Press에 의해 4권으로 출판되었다. 10여년의 계속적인 개정작업의 토대위에 이루어진 제20판은 구성이나 특징에 있어서 기존의 판들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다. 특히 완전개정표(complete revision)인 780 Music은 DDC의 역사에서 지금까지 시도되어온 것중 가장 근본적이고 철저하게 개정된 것이다.

제20판의 780 Music은 DDC의 전반적인 윤곽을 따르면서 이전의 판들을 거의 참고하지 않은 새로운 것으로,³⁰⁾ 대부분의 numbers는 새로운 의미로 재구성 되었다. 철저한 개정과 함께 780 Music은 제19판의 41페이지에서 55페이지로 증가하였고, 각 도서관이 요구하는대로 확장시키거나 축소시킬 수 있는 세분된 분류표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많은 세부사항은 *Proposed Revision of 780 Music*을 기초로 하면서 Proposed Revision에 나타난 주제의 하위주제는 새롭게 배열하기도 하였다. 제19판으로부터 완전개정표인 제20판에서의 주요한 변화내용을 살펴보면, 눈에 있어서 781, 787, 788의 용어상의 변화외에 모두 변경되었는데, 이들을 제19판과 비교하면 <표8>과 같다.

각 目内の 細目 또한 완전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장에서 상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28) E. J. Coates, *The British Catalogue of Music Classification*. London: The Council of the British National Bibliography, 1960.

29) Robert H. Hassell, "Revising the Dewey Music Schedules : Tradition vs. Innovation",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26, no.2(April/June, 1982), pp.192-203.

30) Melvil Dewey,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0th ed. op.cit., v.3, p.548.

〈표 8〉 DDC 제20판의 음악분야 目名 변경

〈 제19판 〉	〈 제20판 〉
781 General Principles and considerations	→ General principles and musical forms
782 Dramatic music and production of musical drama	→ Vocal music
783 Sacred music	→ Music for single voices The voice
784 Voice and vocal music	→ Instruments and instrumental ensembles and their music
785 Instrumental ensembles and their music	→ Ensembles with only one instrument per part.
786 Keyboard instruments and their music	→ Keyboard, mechanical, electrophonic, percussion instruments
787 String instruments and their music	→ Stringed instruments(Chordophones) Bowed stringed instruments
788 Wind instruments and their music	→ Wind instruments(Aerophones)
789 Percussion, mechanical, electrical instruments	→ (Composers and traditions of music)

4. DDC 제20판 音樂分野의 展開

가장 최근판인 DDC 제20판은 이용자를 보다 편리하게 라는 目的으로 미래의 요구를 준비함과 동시에 오늘날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³¹⁾ DDC 제20판은 기존의 판들과 많은 차이점이 있으나, 대부분 주제관계는 변경시키지 않고 다만 주제의 계층구조만을 심화시켰는데, 780 Music의 완전개정표는 단순이동 뿐만 아니라 분산이동이 이루어진 것도 있다.³²⁾ 그러나 DDC의 전반적인 윤곽을 따르면서 많은 세부사항은 *Proposed Revision of 780 Music*을 기초로 삼

31) Ibid., v.1, p.xix.

32) 제19판까지의 782 Dramatic music은 제20판에서 781.552 Dramatic music, 782.1 Dramatic vocal forms Operas 및 792 Stage presentations 아래의 792.5 Opera, 792.6 Musical plays, 792.7 Variety shows, 792.8 Ballet and modern dance로 분산·전개되었다.

고 있다. 가장 최근판인 제20판을 대상으로 음악분야의 전개상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780 Music의 전체구조를 살펴보면 <표9>와 같다.³³⁾

< 표 9 > DDC 제20판 음악분야의 전체구조

780.0001 - .0999	Relation of music to other subjects
780.1 - .9	Standard subdivisions, regular and modified
781 - 788	Principles, forms, ensembles, voices, instruments
781	General principles and musical forms
782-788	Voices and instruments
782-783	Voices and vocal music
782	Vocal music
783	Music for single voice The voice
784-788	Instruments and their music
784	Instruments and instrumental ensembles and their music
785	Ensembles with only one instrument per part
786-788	Specific instruments and their music
786	Keyboard, mechanical, electrophonic, percussion instruments
787	Stringed instruments
788	Wind instruments

제20판의 음악분야 780 Music은 선택적 항목인 (789) Composers and tradition of music을 제외하고 고려해 볼때, 음악전체를 principles와 forms, voices, ensembles 및 instruments로 구분하였는데, 이것은 1980년의 *Proposed Revision of 780 Music*과 거의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 여기에서 “voices”란 사람의 음성 (human voice)을 말하고, “instruments”는 Hornbostel이 언급한 바와 같이 소리를 만드는 기구를 말한다. 또한 voices와 instruments는 모두 executants, 즉 소리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³⁴⁾

33) Melvil Dewey,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0th ed. op. cit., v.4, p.927.

34) Loc. cit.

780 Music의 대체적인 요목은 <표9>에서 보는 바와 같이 781 General principles and musical forms, 782-783 Voices and vocal music 및 784-788 Instruments and their music 順으로 배정되어 있다. 이것은 음악분야 전체를 이론분문에 하나의 요목, 성악분문에 2개의 요목, 그리고 기악분문에 5개의 요목을 배정하고 있다. 따라서 음악분야의 전체적인 구성이 실천위주, 특히 연주중심의 분류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782-788까지의 연주분문의 전개는 서양음악, 즉 서양의 성악과 기악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다음으로 음악분야의 細目구분 배열체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먼저 음악분야 일반을 살펴보면 <표10>과 같다.

〈 표 10 〉 DDC 제20판 음악분야 일반의 細目구분

- 780 Music
- 780.1 Philosophy and theory
- 780.2 Miscellany
- 780.7 Education, research, performances, related topics.
- 780.8 History and description of music with respect to kinds of persons
- 780.9 Historical, geographical, persons treatment

음악일반의 細目배열은 780.1-780.2와 780.7-780.9에서는 표준세분표의 순서로 되어 있고, 780.3-780.6은 공기호이다. 780.7에는 음악의 특성을 고려하여 performances를 추가 배정하고 있다.

DDC 제20판에서 음악의 모든 이론분문을 전개한 유일한 목인 781 General principles and musical forms는 크게 Basic principles(781.1)와 Other principles and musical forms(781.2-781.8)로 구분하여 전개하고 있다. 이 음악의 일반원리 및 형식의 細目구분을 살펴보면 <표11>과 같다.

음악의 실천중 연주분야의 하나인 성악분문에 대한 782-783 Voices and vocal music은 이전의 판들에 비하여 많은 세부사항이 주어지고 파셋치시기호(facet indicator)를 통한 세분전개가 가능해 졌으며, 주요한 특징은 제19판과 같은 character의 배열이다.³⁵⁾

35) Ibid., p.930.

〈표 11〉 DDC 제20판 음악의 일반원리 및 형식의 細目구분

781	General principles and musical forms
781.1	Basic principles
781.2	Elements of music
781.3	Compositions
781.4	Techniques of music
781.5	Kinds of music
781.6	Traditions of music
781.7	Sacred music
781.8	Musical forms

782와 783 2개의 目으로 전개된 성악은 큰 성악음악에서 작은 성악음악順으로 크게 Vocal forms(782.1-782.4)와 Vocal executants(782.5-782.9), Single voices in combination(783.1) 및 Solo voices(783.2-783.9)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782.1- 782.4 Vocal forms는 Dramatic(782.1)과 Nondramatic(782.2-782.4)으로, 다시 782.2-782.4 Nondramatic은 Sacred(782.2-782.3)와 Secular(782.4)로 전개하였다. 주로 choral music을 의미하는 782.5-782.9 Vocal executants는 Mixed voices(782.5)와 Types of voices(782.6-782.9)로 전개되어 있다. 783 Music for single voice The voice는 part마다 한 voice를 갖는 음악, 즉 part songs와 solos에 대한 항목을 전개하고 있는데, 783.1 Single voices in combination은 part songs를 말한다. 또한 783.2-783.9 Solo voices는 Solo voice(783.2)와 Specific types of single voices(783.3-783.9)로 구분하여 전개되었다. 이상의 성악부문에서의 目과 細目구분은 〈표12〉와 같다.

〈표 12〉 DDC 제20판 성악부문의 目과 細目구분

782	Vocal music	783	Music for single voice The voice
782.1	Dramatic vocal forms Operas	783.1	Single voices in combination
782.2	Nondramatic vocal forms	783.2	Solo voice
782.3	Services(Liturgy and ritual)	783.3	High voice
782.4	Secular forms	783.4	Middle voice
782.5	Mixed voices	783.5	Low voice
782.6	Woman's voices	783.6-8	Woman's, child's, man's voice
782.7	Children's voices	783.9	Other types of voice
782.8	Men's voices		
782.9	Other types of voices		

음악의 연주분야 중 또 다른 하나인 기악부문에 관한 784-788 Instruments and their music은 대체로 orchestral ensemble, chamber music 및 single instruments의 순서로서 성악부문에서와 같이 큰 기악음악에서 작은 기악음악順으로 배정하고 있다. 따라서 784 Instruments and instrumental ensembles and their music, 785 Ensembles with only one instrument per part 및 786-788 Specific instruments and their music으로 구성되었다. 다시 786-788 Specific instruments and their music은 악기의 그룹별로 나누어 전개되었다. 기악부문의 목구분을 살펴보면 <표13>과 같다.

〈 표 13 〉 DDC 제20판 기악부문의 목구분

- 784 Instruments and instrumental ensembles and their music
- 785 Ensembles with only one instrument per part
- 786 Keyboard, mechanical, electrophonic, percussion instruments
- 787 Stringed instruments(Chordophones) Bowed stringed instruments
- 788 Wind instruments(Aerophones)

이상의 기악부문의 전개는 DDC의 음악분야를 국제화하려는 편집자들의 의도로서 많은 非西歐악기들을 수용할 수 있는 호른보스텔·작스의 악기분류법과 전통적인 西歐의 악기분류법 그리고 현대의 전기에너지에 의한 전자악기를 조화시키려고 노력한 결과이다.³⁶⁾ 이들 기악부문은 기악앙상블과 각 기악음악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784와 785의 2개의 목표로 이루어진 기악앙상블은 악기의 編成에 의한 분류로 크게 General principles, musical forms, instruments(784.1), Full(Symphony) orchestra(784.2), Other orchestral combinations and band(784.3-784.9) 및 Ensembles with only one instrument per part(785.1-785.9)로 전개되어 있다. 또한 785 Ensembles with only one instrument per part는 Ensembles by size(785.1)와 Specific kinds of ensembles(785.2-785.9)로, 다시 785.2-785.9 Specific kinds of ensembles는 Ensembles consisting of two or more instrumental groups(785.2-785.5)와 Ensembles consisting of only one

3) Ibid., p. 932.

instrumental group(785.6-785.9)으로 나누어 전개되어 있다. 이상의 기악양상블에 관한 目과 細目구분을 살펴보면 <표14>와 같다.

< 표 14 > DDC 제20관 기악양상블의 目과 細目구분

784	Instruments and instrumental ensembles and their music	785	Ensembles with only one instrument per part
784.1	General principles, musical forms, instruments	785.1	Ensembles by size
784.2	Full(Symphony) orchestra	785.2	Ensembles with keyboard
784.3	Chamber orchestra	785.3	Ensembles without electrophones and with percussion and keyboard
784.4	Light orchestra	785.4	Ensembles without keyboard
784.6	Keyboard, mechanical, electronic, percussion bands	785.5	Ensembles without keyboard and with percussion
784.7	String orchestra	785.6	Keyboard, electrophone, percussion ensembles
784.8	Wind band	785.7	String ensembles Bowed string ensembles
784.9	Brass band	785.8	Woodwind ensembles
		785.9	Brass ensembles

786, 787, 788의 3개의 目으로 이루어진 기악은 악기의 분류에 의한 음악으로 크게 786 Keyboard, mechanical, electrophonic, percussion instruments, 787 Stringed instruments Bowed stringed instruments 및 788 Wind instruments로 분류되어 있다. 이것은 일단 유럽의 전통적인 악기분류인 3분류법, 즉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로 구분하고, 타악기에 건반악기, 기계악기 및 전자악기를 함께 포함시켜 다시 3구분한 것이다. 또한 호른보스텔·작스의 악기분류법과의 조화를 위하여 Stringed instruments에 Chordophones, Wind instruments에 Aerophones, Percussion instruments 부문에 Idiophones와 Membranophones등의 용어를 연결시켜 주었으며, 현대의 전자악기인 Electrophonic instruments, 즉 Electrophones를 추가하였다.

각 기악부문의 細目を 살펴보면, 모든 3개의 目에서의 첫 細目인 786.1, 787.1, 788.1은 모두 공기호로 되어 있다. 또한 786 Keyboard, mechanical, electrophonic,

percussion instruments에서는 keyboard instruments에 가장 많은 4개의 분목, 즉 Keyboard stringed instruments(786.2-786.4)와 Keyboard wind instruments Organs (786.5)를, mechanical과 electrophonic instruments에는 각각 1개의 분목을, 그리고 percussion instruments에 2개의 분목, 즉 Percussion instruments(786.8)와 Drums and devices used for percussion effects(786.9)를 배정하고 있다. 787 Stringed instruments Bowed stringed instruments에서는 현악기의 각 악기와 그룹명을 혼합하여 8개의 분목으로 전개되어 있다. 788 Wind instruments는 Woodwind instruments and free aerophones(788.2), Specific woodwind instruments(788.3-788.8) 및 Brass instruments(788.9)로서 목관악기 중심으로 전개되어 있다. 이상의 기악음악 부문의 각 목과 細目구분을 살펴보면 <표15>와 같다.

5. DDC 제20판 音樂分野의 問題點

DDC의 음악분야는 초판부터 현재의 제20판에 이르기까지 가장 많은 개정 및 분류확장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온 주제분야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1989년의 제20판 780 Music은 10여년의 계속적인 개정작업의 토대위에 이루어진 완전개정표로 DDC의 역사에서 지금까지 시도되어온 것중 가장 철저하게 개정된 것이다. 그러나 역시 초판의 기본골격의 고수라는 편집방침에 의하여 기존의 780이라는 예술內의 한 綱의 범위를 사용하여 음악을 전개하므로써 많은 문제점이 야기된다. 또한 음악의 분류에 있어서도 음악주제의 특성을 고려해 볼때 상당한 문제점이 발견된다. 따라서 제4장에서 살펴본 DDC 제20판 음악분야의 전개상황을 중심으로 일반분류의 요건과 음악주제의 특성을 토대로 하여 세계적인 표준분류표로서의 그 전개상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은 人文科學, 특히 예술분야에 있어서 주요한 학문이다. 또한 DDC는 최초에 인문계 단과대학인 Amherst 대학도서관의 장서를 분류하기 위하여 편찬된 것으로 인문과학 중심의 분류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DC에 있어서 음악은 1876년의 초판부터 현재의 제20판까지 第8類인 700 藝術(The arts Fine and decorative arts)內의 한 綱인 780 Music으로 분류되어 왔다. 초판 당시 Dewey는

〈 표 15 〉 DDC 제20판 각 기악의 目과 細目구분

786	Keyboard, mechanical, electro- phonic, percussion instruments	787	Stringed instruments (Chordophones) Bowed stringed instruments
786.2	Pianos	787.2	Violins
786.3	Clavichords	787.3	Violas
786.4	Harpichords	787.4	Cellos(Violoncellos)
786.5	Keyboard wind instruments Organs	787.5	Double basses
786.6	Mechanical and aeolian instruments	787.6	Other bowed stringed instruments Viols
786.7	Electrophones Electronic instruments	787.7	Plectral instruments
786.8	Percussion instruments	787.8	Plectral lute family
786.9	Drums and devices used for percussion effects	787.9	Harps and musical bows
788	Wind instruments(Aerophones)		
788.2	Woodwind instruments and free aerophones		
788.3	Flute family		
788.4	Reed instruments		
788.5	Double-reed instruments		
788.6	Single-reed instruments		
788.7	Saxophones		
788.8	Free reeds		
788.9	Brass instruments(Lip-reed instruments)		

예술분야에 있어서의 모든 중요한 주제들을 결정하고 이들을 십진식으로 배치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것으로 부터 추상적인 것의 순서로 배열했으며, 추상적인 예

술일수록 'art objects' 수는 많아지게 되므로 文學을 따로 한 類(80C)로서 할당하였다고 하였다.³⁷⁾ 따라서 문학과 함께 추상적인 예술로 고려되는 음악은 막대한 양의 음악자료를 분류함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켜 왔으며, DDC에 있어서 지금까지 가장 개정을 필요로 하는 한 분야로 여겨져 왔다. 이것은 DDC에 있어서 主類의 선정이 어떠한 보편타당한 이론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십진식 기호법의 한계상 동일한 계층수준의 주제를 9개의 제한된 구분안에 두므로써 구분력이 약한 십진식의 한계에 봉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DDC의 제1·2판의 기본골격의 고수라는 편집방침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많은 논란과 비판이 지속되어 왔으며 현재의 관점에서는 특히 DDC의 기본골격 자체에 문제점이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다.³⁸⁾

둘째, 분류기호의 간결성면에서의 문제로서, 이것은 DDC 전체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음악분야의 경우, 음악이 한 綱으로 분류되므로써 類로 분류된 동일한 계층수준의 다른 주제분야에 비하여 세분되는 주제들의 분류기호가 더욱 길어지게 된다. 또한 음악內에서도 무한히 십진식으로 전개되므로써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주제는 분류번호가 무한정 길어지게 된다. 이것은 십진식 기호법의 한계상 동일한 계층수준에 관한 주제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9의 제한된 구분으로 축소시키므로써 10이라는 기본수는 기호체계의 親近性を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³⁹⁾ 또한 현존하는 주제가 십진식으로 무한히 전개될 수 있을지라도 오늘날의 새로운 항목이 추가될 때 대등한 번호사이에 배정할 여유가 거의 없다. 따라서 유사주제에 새로운 주제를 추가하거나 그 유사주제아래 전개하므로써 각 개념의 상하·좌우관계가 논리적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새로운 주제삼입은 세분항목을 축소하지 않는한 불가능하게 된다. 또 전개할 수 있는 용량은 무한한 반면 그것이 세부적인 주제인 경우 분류번호가 길어지는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십진식이라고 하는 고정된 관념을 벗어나서 필요에 따라서는 두자리수 또는 세자리수의 융통성 있는 전개를 확대하여 전개한다면 분류기호의 자리수도 더욱 짧아지는 동시에 일관성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⁴⁰⁾

셋째, DDC 제20판은 음악의 이론을 무시한 실천중심, 특히 연주중심의 분류이

37) John Phillip Comaromi, op. cit., p.76.

38) 정필모, "국제백진분류법연구(1): ICC에 있어서 主類의 設定과 그 展開", 문헌정보학보 제5집,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창설30주년기념특집. 서울: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1993. 8, p.4.

39) _____, 문헌분류론. 서울:구미부역, 1991. p.172.

다. 이것은 초판부터 계속된 것으로, 9개의目中 1개目の 음악이론外에는 모두 음악의 실천 특히 연주에 관한 항목을 배정하고 있다. 음악은 이론중심적인 다른 학문과는 달리 이론에 실천이 동반되는 학문으로 크게 이론과 실천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누며, 실천은 작곡과 연주로 나뉘게 된다. 그 중 이론은 모든 음악에 관한 이론적인 연구 및 활동으로 음악학이라 불리우는데, 음악학이란 광의로는 “고대이후 발전된 음악에 관한 모든 이론”을, 협의로는 “18세기 이후에 발전된 독립된 과학으로서의 근대음악학”을 말한다.⁴⁰⁾ 19세기 말기의 학문적 기초에 바탕을 두고 창안된 DDC는 당시 근대적 의미의 독립과학으로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 음악학과 음악학의 제 분야를 전혀 수용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제20판 역시 이들에 관한 항목배정은 전혀없이 주로 이론에 관한 항목을 781 General principles and musical forms의 한目中 부분적으로 배정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음악의 실천부분에서 연주와 비교되는 작곡이 주로 음악의 이론부분을 취급한 781의 한 細目인 781.3 Compositions로 배정되어 있다. 따라서 작곡은 음악의 이론부분과는 별도로 전개되어야 하며, 781 General principles and musical forms는 음악학의 한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음악의 이론부분을 총괄하여 일컫는 음악학 아래 모든 음악의 이론부분이 전개되어야 한다. 또한 음악학의 제 분야인 체계음악학, 역사음악학, 응용음악학 및 이들의 각 분과학을 수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음악학의 발전에 따라 계속 확충되어질 분야 또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음악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확보해 가고 있는 음악학, 즉 음악의 이론분야에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넷째, DDC는 처음 미국의 Amherst 대학도서관의 소장장서를 분류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 歐美의 전통아래 만들어진 것이다. 또한 DDC가 분류기준으로 삼았던 Francis Bacon과 William T. Harris의 지식구분도 서양학문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은 음악분야에도 나타나 서양중심의 음악이론과 성악 및 기악을 분류하여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DDC는 오늘날 135개국 이상에서의 많은 도서관이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가장 인정받고 있는 표준적분류표로서 그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제20판의 780 Music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완전개정표로서 전개되었으나 역시 서양중심의 음악을 전개하

40) 이창수, 歷史 및 地理類에 대한 組合式分類表의 展開. 서울:중앙대학교대학원, 1992. 박사학위논문, p.130.

41) F. Blume ed. op.cit., s.1192.

고 있어, 서양이외의 나라에서 DDC를 적용하고자 하면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제17판이후 자국우위권에 따라 고쳐쓰도록 권장하는 여러가지 선택조항을 만들고 필요에 따라 변경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조항이나 변경가능성은 각자 자기나라의 음악에 초점을 맞추어 분류표를 적용할 때만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도 DDC를 사용하는 도서관의 경우 한국음악인 國樂에 대한 전개가 없어 음악부문을 별도로 재전개하여 사용하고 있다. 예를들면, 국회도서관과 서강대학교도서관은 783.4에 불교음악, 789에는 한국음악·타악을, 동국대학교도서관은 780.91에 한국음악(國樂)과 780.98에 중국음악을, 이화여자대학교도서관은 787.91에 한국현악기, 788.91에 한국관악기, 789.61에 한국타악기를 배정하여 사용하고 있다.⁴²⁾ 그러나 세계 각국의 모든 음악과 음악학을 모두 수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재전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제적인 표준분류표로서의 성장을 위해서는 음악분야 전개의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

다섯째, 분류기호의 항목배정에 있어서의 불균형 문제로 먼저 음악의 이론부문과 실천부문의 관계 그리고 실천부문에 있어서 작곡과 연주와의 관계를 들 수 있다. 음악분야의 8개目中 이론부문에 1개, 실천부문에 7개目を 배정하고 있는가 하면, 실천부문의 7개目は 모두 연주에 관한 것이고 작곡은 실천부문이 아닌 이론부문의 한 細目인 781.3 Compositions로 배정하고 있다. 또한 다음에 논의될 성악과 기악부문은 제외하고 주로 음악이론 부문을 전개한 781 General principles and musical forms를 대상으로 살펴보면, 1) 781.2 Elements of music에 있어서 음악의 3요소중 Melody는 781.24에, Harmony는 781.25에 배정되어 있고, 3요소중 가장 중요한 Rhythm은 781.22 Time아래의 781.224에 배정되어 있다. 2)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781.3 Compositions는 음악의 실천부문에서 연주와 비교되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론부문에 전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연주에는 7개의目を, 작곡에는 하나의 細目を 배정하고 있다. 3) 781.6 Traditions of music과 781.7 Sacred music은 음악이론이나 781 음악의 일반원리 및 형식에 들어갈 수 없는 음악의 또 다른 분야이다.

여섯째, 분류기호 782와 783에 배정된 성악부문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1) 783 Music for single voice The voice는 782 Vocal music의 한 부분에 해당되는데 동일한 계층수준으로 분류되어 있다. 2) 782 Vocal music에서 782.1-4 Vocal

42) 최 윤숙, 우리나라 도서관의 DDC 동양부문 전개비교 연구. 서울:이화여자대학교교육대학원, 1974. 석사학위논문, pp.57-61.

forms로 분류된 782.1 Dramatic vocal forms Operas, 782.2 Nondramatic vocal forms, 782.3 Services(Liturgy and ritual) 및 782.4 Secular forms는 성악內에 전개할 수 없는 음악의 다른 부분이다. 3) 783.2-.9 Solo voices에서의 783.3 High voice, 783.4 Middle voice, 783.5 Low voice는 소리넓이에 의한 성악의 분류로 성악에서 흔히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다. 따라서 이것은 音域에 의한 性을 먼저 구분한 후에 여성의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와 남성의 테너, 바리톤, 바스등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분류기호 784와 785에 배정된 악기편성에 의한 분류로서의 기악양상블 부문에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1) 785 Ensembles with only one instrument per part는 784 Instruments and instrumental ensembles and their music의 한 부분에 해당되는데 동일한 계층수준에 분류되어 있다. 2) 784 Instruments and instrumental ensembles and their music과 785 Ensembles with only one instrument per part는 細目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 784는 악기들의 양상블을, 785는 한 악기군의 양상블을 말하나 細目에 있어서 실제로 784.7 String orchestra와 785.7 String ensembles, 784.8 Wind band와 785.8 Wind ensembles, 그리고 784.9 Brass band와 785.9 Brass ensembles는 동일한 개념이며, 오히려 785.7 String ensembles는 784.7 String orchestra 보다 큰 개념이다.

여덟째, 분류기호 786, 787, 788에 배정된 악기분류에 의한 기악부문에서의 문제점을 분류상의 각 악기의 기악부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악부문의 전개는 악기분류의 국제화를 위하여 이전의 전통적인 西歐의 악기분류법에 많은 非西歐 악기들을 수용할 수 있는 호른보스텔·작스의 악기분류법과 현대의 전자악기를 조화시키려고 노력한 것이다. 그러나 각 目과 細目の 전개는 여전히 서양악기 중심이다. 이것은 서양악기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또 알려진 악기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분류표로서 전 세계의 모든 민속악기를 수용할 수 있는 보완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2) 786 Keyboard, mechanical, electrophonic, percussion instruments에서 첫째, 건반, 기계, 전자 및 타악기를 한 그룹으로 묶어 786에 배정한 근거가 불분명하다. 둘째, 8개의 분목중 건반악기에 4개, 타악기에 2개, 기계악기와 전자악기에 각각 1개씩의 분목을 배정하여 건반악기 중심의 분류로서 분류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셋째, 건반악기는 크게 Keyboard stringed instruments와 Keyboard wind

instruments로 구분하였는데, Keyboard stringed instruments에 해당되는 786.2-4는 악기명으로, Keyboard wind instruments의 786.5는 악기의 그룹명으로 표현하여 용어표현상의 일관성이 없다. 따라서 Keyboard wind instruments에 해당되는 악기는 Keyboard stringed instruments에 해당되는 악기보다 한 자리수 더 세분되어 분류된다.

3) 787 Stringed instruments Bowed stringed instruments에서 첫째, 현악기를 연주방법에 따라 크게 Bowed stringed instruments(擦絃樂器)와 Plectral stringed instruments(撥絃樂器)로 구분하여, Bowed stringed instruments에 5개의 분목(787.2-6)을, Plectral stringed instruments에 3개의 분목(787.7-9)을 배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악기는 이 외에 打絃樂器와 건반현악기를 추가하여 4가지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기타항목이라도 배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항목의 용어표현에 있어서 Bowed stringed instruments의 주요악기는 악기명으로 표현한 것에 반하여 Plectral stringed instruments는 그룹명으로 표현하고 있어 용어표현상의 일관성이 없다.

4) 788 Wind instruments에서 첫째, 관악기는 크게 목관악기와 금관악기로 구분되는데, 본 관악기의 분류는 8개의 분목중 목관악기에 7개, 금관악기에 1개의 분목을 배정하므로써 철저히 목관악기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어 분류상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둘째, 목관악기중 특히 Flute(788.3)과 Saxophones(788.7)에는 각각 하나씩의 분목을 배정하여 악기명으로 나열한 반면에 동일한 계층수준의 다른 분목은 그룹명으로 표현하고 그 밑에 악기명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용어표현상의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악기에 따라 細目 한자리수에 분류되기도 하고 두자리수에 분류되기도 한다.

6. 結 論

이상은 DDC 음악분야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고찰하기 위하여, 음악 및 음악학을 이론적배경으로 DDC 음악분야의 변천과정과 특히 제20판의 음악분야 전개상황을 상세히 살펴보았다. 그 결과 나타난 DDC 음악분야 전개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음악은 인문과학, 특히 예술분야에 있어서 주요한 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판부터 제20판까지 第8類인 700 藝術内の 한 綱(780)으로 분류되어 왔다. 이것은 십진식 기호법의 한계와 이에 따른 DDC의 主類선정의 문제점에서 기인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십진식이라는 고정관념을 벗어난 융통성 있는 그리고 어떠한 보편타당한 이론에 기초한 主類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분류기호의 간결성면에서의 문제로, 이것은 DDC 전체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다. 특히 음악분야의 경우, 음악이 한 綱으로 분류되므로써 類로 분류된 동일 계층 수준의 다른 주제분야에 비하여 분류기호는 더욱 길어지게 된다. 또한 음악 內에서도 세부적인 주제는 무한히 십진식으로 전개되므로 분류기호가 무한정 길어진다. 그리고 새로운 항목이 추가될 때 대등한 번호사이에 배정할 여유가 없게 되므로, 새로운 주제는 그 유사주제에 추가하거나 유사주제아래 전개할 수밖에 없다. 이 또한 십진식 기호법의 한계에 기인하는 것으로 필요에 따라 십진식, 백진식을 융통성있게 사용하여 전개한다면, 분류기호는 훨씬 짧아지고 일관성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3. DDC의 음악분류는 서양중심의 음악, 즉 음악이론, 성악 및 기악등을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서양이외의 나라에서 DDC를 적용할 때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제17판이후 자국우위권에 따라 여러가지 선택조항을 만들고 필요에 따라 변경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조항이나 변경가능성은 어느 한 나라의 음악에 초점을 맞추어 분류표를 적용할 때만이 가능하다. 더욱이 DDC는 오늘날 135개국 이상에서의 많은 도서관이 채택하고 있고 국제적 표준분류표로서 인정받고 있는바, 세계 각국의 모든 음악과 음악학을 대등하게 수용할 수 있는 분류표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4. DDC의 음악분류는 음악의 이론을 무시한 음악의 실천중심, 특히 연주중심의 분류를 전개하고 있다. 이것은 초판부터 계속된 것으로, 9개의目中 8개의目に 음악의 실천, 특히 연주에 관한 항목을 배정하고 있다. 또한 DDC는 19세기 말기의 학문적 기초에 바탕을 둔 분류표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근대적 의미의 독립과학으로서 계속 발전하고 있는 음악학과 음악학의 제분야를 전혀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음악의 균형있는 항목배정과 음악학의 제분야 및 이들의 각 분과학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음악분야의 전체적인 구성이 재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5. 음악분야는 분류기호의 항목배정에 있어서 심한 불균형문제를 나타내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잘못 배정된 경우도 있다. 예를들면, 불균형문제에 있어서는 음악의 이론부문과 실천부문과의 관계, 작곡과 연주와의 관계를 비롯하여 성악 및 기악의 細目부문에서 흔히 발견된다. 또한 작곡은 음악의 실천분야중 주요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이론부문內의 781.3으로 배정되어 있다. 따라서 음악주제 분야에 대한 올바른 지식하에 항목배정의 재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 음악주제 용어표현에 있어서 첫째, 음악주제분야에서 주로 사용되지 않는 용어가 발견된다. 예를들면 성악부문에서의 783.3 High voice, 783.4 Middle voice, 783.5 Low voice 등으로, 이것은性を 먼저 구분한 후 여성의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와 남성의 테너, 바리톤, 바스 등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용어표현의 일관성 문제로 특히 기악부문에서 흔히 발견되는데, 동등한 계층수준에서 악기가 그룹명으로 표현되는가 하면 악기명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따라서 악기에 따라 細目 한 자리수에 분류되기도 하고 두 자리수에 분류되기도 하므로, 모든 악기가 동등한 수준에서 배정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編. 한국악기대관. 서울 : 한국국악학회, 1969.
- 배영환. “DDC 제20판의 성립과정과 구성 및 개정사항에 관한 연구(1)”, 도서관 제44권 5호(1989,9,10), pp.22-31.
- 송방송. “한국음악학의 성장과정과 당면문제”, 민족문화연구의 방향. 대구 : 영남대학교 출판부, 1980. pp.145-172.
- 안미자譯. Hoffer, Charles R.著. 음악교육론.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사, 1987.
- 이강숙. 음악의 방법. 서울 : 민음사, 1982.
- 이창수. 歷史 및 地理類에 대한 組合式分類表의 展開. 서울 : 중앙대학교대학원, 1992. 박사학위논문.
- 음악대사전. 서울 : 세광출판사, 1982.
- _____. 서울 : 신진출판사, 1973.
- 정진홍. 음악도서관의 전문봉사에 관한 연구.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82. 석사학위논문.
- 정필모. “국제백진분류법연구(I): ICC에 있어서 主類의 設定과 그 展開”, 문헌정보학보 제5집.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창설30주년기념특집. 서울 :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1993.
- _____. 문헌분류론. 서울 : 구미무역, 1991.
- 최윤숙. 우리나라 도서관의 DDC 동양부문 전개비교 연구.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74. 석사학위논문.
- 최정희. DDC에 있어서의 Phoenix표의 변천고. 서울 : 중앙대학교대학원, 1990. 석사학위논문.
- 韓國國樂學會編. 韓國國樂器圖說. 서울 : 동신문화출판사, 1966.
- 홍옥자. 한국도서관에서 채용하고 있는 분류법의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 연세대학교교육대학원, 1977. 석사학위논문.
- 홍정수, 조선우편저. 음악은이 1. 서울 : 세광음악출판사, 1990.
- Asheim, Lester. *The Humanities and the Library : Problems in the interpretation, evaluation and use of library materials*. Chicago : ALA, 1957.
- Blume, F. ed. *Die Musik in Geschichte und Gegenwart*. Kassel : Bruckerei C.

- Bruegel & Sohn, 1968. Band.9.
- Comaromi, John Phillip. *The Eighteen Editions of the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lbany, New York : Forest Press, 1976.
- _____. "The Foundations of the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 The First Two Editions", In *Melvil Dewey : The Man and the Classification*. Albany, New York : Forest Press, 1983.
- _____. "Use of the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22, no.4(Fall, 1978), pp.402-408.
- Custer, Benjamin A. "A Manual on the Use of the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4, no.3 (Summer, 1960), pp.247-252.
- Dewey, Melvil. *A Classification and Subject index for Cataloging and Arranging the Books and Pamphlets of a Library*. Amherst, Mass. : [Amherst College Library], 1876.
- _____.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 Index*, 2nd ed. (revised and greatly enlarged ed.) Boston : Library Bureau, 1885.
- _____.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20th ed. Albany, New York : Forest Press, 1989. 4 vols.
- Hassell, Robert H. "Revising the Dewey Music Schedules : Tradition vs. Innovation",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 26, no.2 (April/June, 1982), pp.192-203.
- Haydon, Glen. *Introduction to Musicology*. Chapel Hill :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41.
- Hornbostel, Erich M. "The Ethnology of African Sound-instruments", *Africa* vi (1933). pp.126-130.
- _____. and Sachs, Curt. "Systematik der Musikinstrumente : ein Versuch", *Zeitschrift für Ethnologie* Heft 4 n.5 (Jahrg, 1914), pp.553-590.
- Intner, Sheila S.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20th Edition : A Review Article", *Library Resources & Technical Services* vol.33, no.2(March/

April, 1989), pp.186-191.

Rogers, A. Robert. *The Humanities : A Selective Guide to Information Sources*, 2nd ed. Littleton, Colorado : Libraries Unlimited, Inc., 1979.

Sweeney, Russell and Clews, John. *Proposed Revision of 780 Music Based on Dewey Decimal Classification and Relative Index*. Albany, New York : Forest Press, 1980.

Wachsmann, Klaus, Hornbostel, Erich M. and Sachs, Curt. "Instruments, classification of", In Stanley Sadie ed. *The New Grove Dictionary of Music and Musicians*. London : Macmillan, 1980. v.9.

ABSTRACT

A Study of the 780 Music of DDC

Kyung-Shin Hah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oblems concerning 780 music division of DDC. The object is especially arrangement of 780 music in the 20th edition of DDC which is the complete revision.

The result is summarized as follows :

1. Although music is an important subject in humanities, especially in arts, it was classified as one division(780) not class.
2. The arrangement of 780 music is severely west-oriented music theory, vocal music and instrumental music.
3. Classification number of 780 music becomes longer because of the limitation of decimal notation.
4. 780 music division of DDC neglects music theory and emphasizes music practicing, especially performance.
5. The assignment of classification number is unbalanced, especially between theory and practice, composition and performance, and among sub-sections of vocal and instrumental music.
6. Many important subject are omitted in DDC music schedule, for example, musicology and branches of musicology, composition and traditional instruments of many countries.
7. Employment of terminology is often improper and inconsistent.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Hannam University.